

아파트 단지내 아동 유희시설의 이용행태에 관한 연구 - 전주시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

On Studying Utilization Form of Children Amusement Facility in the Apartment Housing

임용민*
Lim, Yong-Min

김홍배**
Kim, Hong-Bae

Abstract

The development of science technology and high growth of economy have influenced on the change of living environment and have changed people's way of thinking and behavior. Also, apartments has appeared to solve the shortage of housing in cities. This study has a thorough grasp about problems of juvenile playground in the apartments and comes the following conclusion as a result that all sorts of details for amusement behavior have been analyzed. First, juvenile playground should be harmonized with nature, and needs a construction of amusement place that include fixed amusement facilities. Second, for a constitution of dynamic amusement place, a school playground should be opened in the public and parking lots should be utilized for dynamic amusement place in a different time. Third, juvenile playground should be classified by age, especially infant amusement facilities should be installed where a landscape architecture has placed between buildings. Also a daylight should be shined into the place, under considering the installation of bench for parents and rest space. Fourth, a location of amusement place is needed a careful consideration of the environment and building placement, in addition that suitable distance should be set up for children to come into contact easily. Fifth, insufficient things should be complemented as compared with the standards of foreign amusement facilities and guideline should be suggested for maintenance and management of amusement place.

Keywords : apartment housing, children amusement facility

주요어 : 아파트 단지, 아동 유희시설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는 급속한 공업화를 중심으로 과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고도의 경제 성장으로 인한 인구의 도시집중과 가족제도의 핵가족화 등 급격한 생활환경의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생활환경의 변화는 개인의 의식구조와 행동의 변화를 필연적으로 초래하

였을 뿐만 아니라, 주생활면에서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도시의 인구집중화현상으로 인한 주택의 양적 부족의 해결책으로 아파트라는 주거형태가 등장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더하여 기능위주의 주거환경 및 주거시설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자라나는 아동들에게 있어서 주거환경은 꿈과 이상을 심어주고 정신적 성장을 지배하는 중요한 환경으로 작용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아동들에게 있어서 유희는 일과 구분되는 단순한 휴식의 의미를 지니는 것 뿐 아니라, 유희를 통하여 무의식적인 지식과 경험을 얻을 수 있으며 나아가 즐거움을 느끼게 된다. 아동은 유희활동을 통하여 성장·

*정회원, 전주대학교 건축학과 조교수

**정회원,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본 연구는 2003학년도 전주대학교 학술 연구비 지원에 의한 결과임.

발달한다¹⁾. 또한 아동은 공간에 민감하며 환경과의 강력한 상호작용을 통해 지적 성숙을 이해하며 달성한다²⁾. 이는 공간이 환경을 창조할 뿐만 아니라 아동은 그의 환경에 대해 활동적이고 생기 있으며 호기심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아동들에게 안전하게 놀 수 있는 유희장소와 충분한 자유가 아동발달을 위해 제공되어야 한다³⁾. 그러나 우리나라의 유희공간은 아동의 연령 및 성장 단계에 맞는 적절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놀이터는 정적이며 평면적인 구성을 이루고 있으며 특정한 연령층을 위한 놀이터만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주거지역내 어린이들의 생활이며 학습이고 창조적인 활동의 장이라 할 수 있는 어린이 놀이공간에 대한 현장조사 및 관찰을 통하여 유희시설 설치의 의무화 되어 있는 단지내 유희공간 환경을 중심으로 아동의 유희형태, 유희기구 선호 및 유희시설의 이용실태 등을 조사하여 아동의 유희환경을 질적으로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을 본 연구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대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형성되면서 아동의 유희공간은 장식에 불과한 것으로 생각해 왔다. 단지계획의 건설이 새로워지면서 아동의 유희시설에 대한 인식이 날로 그 비중이 증대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연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 조사범위는 전주시내에 위치한 90년대 이후 건설된 10개의 APT단지를 중심으로 한정 설정하였다⁴⁾.

또한 아동의 유희시설 이용실태를 조사·분석함으로써 유희시설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적합한 유희시설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크게 3단계로서 먼저 문헌 및 기초조사로서 동·서양의 유희에 관한 기초 자료조사를 하고, 다음 단

계인 예비조사단계로서 조사대상 아파트의 유희시설의 현황파악을 한 후 마지막 단계인 아동의 유희시설 이용실태파악으로서 조사대상아파트의 유희시설 파악과 조사대상자와의 면담 및 설문조사를 한다⁵⁾.

II. 우리나라와 서양의 유희시설에 관한 고찰

1. 우리나라와 서양의 유희시설 발달 및 비교

1) 우리나라의 발달과정

19세기 말엽에 들어서면서 유희시설의 양과 질의 양면에 있어서 변화와 발전을 가져왔으나 현대의 주거환경은 확실히 이전보다 개선되어 녹음이 우거지고 슬럼가들도 철거되고 좁고 어두운 골목들도 밝은 가로로 바뀌게 되었다. 반면 어린이들은 뒷마당에서 놀던 즐거움을 빼앗겨 버리고, 만들어준 모래장에서 노는 것만으로는 욕구가 충족되지 않아 위험한 거리로 뛰어 나오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거리에서도 날로 증가하는 차량 때문에 더 이상 유희시설의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최근에 이르러서는 아동의 유희시설이 필수적이라는 생각이 널리 인식되었지만 아직도 사회복지 및 도시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아동 유희공간의 유희시설은 철봉, 그네, 미끄럼틀, 정글집 등 10여종을 넘지 못하는 비교적 단조로운 고정식 유희시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바닥처리도 역시 보도블럭이 일부 깔려있고 대부분이 모래와 흙으로 되어 있어 비만 오면 물이 고이는 곳이 많고 관리 및 청소를 하지 않아 지저분한 곳이 많은 실정이다. 따라서 유아의 아동 유희시설은 상당히 등한시 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서울의 경우에는 1980년대에 들어와서 일부 아파트지구에 조합 및 복합 유희시설들이 점차 등장하기 시작하고 있다. 이러한 유희시설은 많은 비용과 넓은 면적이 소요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관계당국이나, 건축주, 설계자, 입주자, 관리자가 공동으로 끊임없는 연구가 병행되어 유희시설이 보다 질적, 양적으로 다양해져야 할 것이다.

1) W. D. Abernethy 「The Importance of Play」, Ekistics, Vol. 28, No.166, 1969, P.206.재인용.

2) Sara H. Arnaud, Some Functions of Play in the Educative Process, Childhood Education, p.73.재인용.

3) Arey L. Albert, For High Schools, Boston, Health, 1912. 재인용.

4) 조사 대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표 6. 조사 대상 아파트의 개요 및 유희시설물 현황을 참조.

5) 조사대상인원은 남자 223명, 여자 187명으로 총 41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 날짜는 2003년 04월 10일부터 2003년 05월 15일까지 하였으며, 조사시간은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하였다.

2. 서양의 발달과정

아동들을 위한 유희시설로는 17세기 영국에서 도시나 촌락의 공유지를 이용한 레크레이션이 있었고 동적 후생시설로는 1880년 미국의 보스턴에 설립된 아동유희장이 그 시초이나 조직화된 유희를 위하여 특별히 설치한 것은 19세기에 이르러서이다. 특히, F.L.Olmsted(1822-1903)에 의해서 뉴욕시에 설립된 Central Park가 근대공원으로써 유럽의 각 도시에 공원조성운동을 일으키게 하는 동기가 되었으며, Olmsted의 공원계통 이념의 동적 후생시설은 공원 발달사상 잊을 수 없는 새로운 사조로 싹트기 시작한 계기가 되었다.

이와 같은 사조는 외국아동의 연령계층별 유희행위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일본의 경우는 우리나라 아동들과 비슷한 연령별 유희행위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유아, 유년층에서는 비슷한 경향을 보이나 소년층에서는 사회적 여건의 상이함으로 인해 우리나라보다 다소 사회성이 높은 놀이를 즐기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3. 외국관련법규와⁶⁾ 비교

국내에서 유희공간과 관련한 법규사항은 주택 건설 촉진법과 시행규칙과 도시공원법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에서 보여주고 있다. 현행 도시공원법에서는 아동의 보조 및 정서 생활의 향상을 위해 유치거리 250 m 이내의 설치와 150 m² 이상의 규모를 어린이 공원의 설치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어린이 공원 내의 동적휴식공간은 공원 면적의 60% 이내로 제한하

표 1. 연령에 따른 유희행위 분류

연령 구분	연령에 따른 유희행위 분류	
	일본	미국
유아	모래장난, 미끄럼대, 그네, 공놀이, 물놀이, 매달리기, 슬래잡기	모래장난, 물놀이, 공놀이, 소형그네, 모래밭, 소꿉놀이, 시소, 나무토막쌓기, 세발자전거
유년	미끄럼대, 그네, 구기, 달리기, 모래장난, 조각놀이, 줄놀이, 씨름	줄놀이, 구기, 슬래잡기, 연날리기, 굴렁쇠 굴리기, 연장놀이
소년	구기, 씨름, 그네, 슬래잡기, 뛰어오르기	구기, 조직적 놀이와 운동, 대형자전거타기, 그룹놀이(춤, 노래, 오락)

6) 주택단지내 어린이 놀이터 설치 면적 규정에 관한 사항.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기준 46조항 참조.

고 있으며 견폐율은 대지 면적의 5%를 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표 2. 우리나라 유희공간의 설치기준

세대수	설치면적 규정(세대당)	비고
100세대 미만	3 m ²	시, 군지역 2 m ²
100세대 이상	300 m ² +매세대당 1 m ²	시, 군지역 200 m ² +0.7 m ² /세대

또한 어린이 전용의 조경시설, 운동시설, 휴양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벤치, 미끄럼틀, 그네, 모래사장, 화장실 등은 어린이 공원의 필수로 나타나고 있다.

외국과의 유희시설 설치 기준 비교를 보면 아동유희시설 설치에 있어 우리나라와 외국의 유형별 설치 기준 및 제안을 보면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기준에 유희시설에 대한 특별한 구분을 하고 있지 않는 반면, 외국에서는 2~3종으로 연령계층에 따라 유희시설을 구분하고 있다⁷⁾.

외국의 놀이터 설치기준을 놀이터의 유형, 면적설치기준, 설치거리 등에 따라 정리하면 일본의 경우 놀이터를 유아놀이터, 유년놀이터, 소년놀이터로 구분하고 유지거리는 유아놀이터 100~125 m, 유년놀이터 250~300 m, 소년놀이터 300~350 m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⁸⁾. 1개소당 단위면적은 각 기준마다 큰 차이를 보여 유아놀이터는 100~1,000 m², 유년놀이터는 300~4,000 m², 소년놀이터는 2,000~12,000 m²

표 3. 각 나라별 유희공간의 유형구분

구분	한국			일본	미국	덴마크	캐나다	이용 연령 계층	이동 거리
	주축법	도시공원법	도시계획시설기준						
유아 놀이터			○	○	○	○	○	0-4세	65-200 m
유년 놀이터	어린이 놀이터	어린이 공원	○	○	○	○	○	5-9세	200-400 m
소년 놀이터								10-14세	400-800 m

7) 대한주택공사, 주택단지내 부대복리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연구, 1982. pp.128-133.

8) 최선희(1994), 『아파트단지내 어린이 놀이터 이용현실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일산 신도시를 중심으로- 흥익대, 석론, p.25.

표 4. 외국의 유희시설 설치 기준

국가명	놀이터 구분	최소 기준 면적	면적 산출 기준	1개 소당 부담세대
덴마크, 미국의 유희공간 설치 기준	유아공원	200 m ²	1세대당 10 m ²	30세대
	유년공원	600 m ²	1세대당 10 m ²	60세대
	소년공원	1,200 m ²	1세대당 15 m ²	120세대
일본의 유희공간 설치기준	유아공원	400-1,000 m ²	유지거리	300세대
			100 m	
	유아공원	1,300-4,000 m ²	유지거리	500세대
			300 m	
	소년공원	2,000-5,000 m ²	유지거리	
			300 m 이상	

이다. 덴마크와 미국의 기준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일본과 마찬가지로 연령층에 따라 2~3종으로 유희 시설을 구분하여 설치하고 있다.

III. 아파트 단지 내 아동 유희시설의 이용행태에 관한 조사분석

1. 사례지구⁹⁾ 조사분석¹⁰⁾ 방법 및 범위

아파트 단지내 아동의 유희환경개선을 위하여 유희시설의 문제점과 그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개선책을 마련코자 그들의 생각과 유희공간의 실태를 면담 및 현장확인(설문지 이용)조사가 이루어졌다. 또한 조사내용은 크게 4가지로 나눠 조사하였다. 첫째, 단위유희시설에 대한 인식조사와 유희시설에 대한 선호도 조사, 유희시설 이용의 현황, 마지막으로 유희시설 이용상 특성에 대한 조사방식으로 이루어졌다.

2. 조사대상 아파트의 유희시설물 현황

조사 대상 아파트별 개요 및 유희시설물 현황을

9) 1990년대 이후 전주시 신시가지지구로서 중형 평대(30평)를 차지하고 있는 APT로서 초등학교 아동이 많은 단지를 선정하였다.








10) 조사분석 남·여 어린이 410명을 대상으로 면담 기록하였으며 현장조사는 아파트의 층수, 세대수, 놀이터의 규모, 기구의 종류, 수량, 관리상태 등 (설문조사 및 촬영)을 시행하였다. 조사지는 교수 1인과 박사과정 1인, 석사과정 5명으로 총 7명이 조사 대상지를 직접 방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결과의 분석 방법으로는 백분율로 환산하였으며, 이를 막대 그래프와 원그래프로 시각화 하였다.

보면 조사대상 아파트의 동수는 5~6동이 대부분이며, 건축년도는 1995~2001년까지의 건축물들이다. 놀이시설로서는 대부분 미끄럼틀과 철봉 그네, 시소, 평행봉 등을 갖추고 있었다.

표 5. 조사 대상 아파트의 개요 및 유희시설물 현황

단지 주소	아파트 명	동 수	층 수	세대 수	건축 년도	놀이 시설물
평 화 동	평화주공그린타운	8	18	520	2001	미끄럼틀: 3개 철봉: 3, 시소: 3 그네: 2, 말: 6
	현대	5	12	282	1998	시소: 3, 철봉: 3 그네: 2, 미끄럼틀: 3 평행봉: 1
	일성	6	15	330	1998	미끄럼틀: 3, 철봉: 2 그네: 3, 시소: 2
서 곡 지 구	청솔	6	15	432	1998	미끄럼틀: 3, 시소: 3 파고라: 1, 로프놀이: 1
	두산	6	14	430	1997	말: 2, 그네: 2 미끄럼틀: 1
	대림	5	12	382	1998	미끄럼틀: 1, 그네: 2 시소: 2, 로프놀이 :1
	LG	4	15	294	1998	미끄럼틀:3, 그네: 2 파고라: 1, 시소: 2
삼 천 동	삼천주공6단지	6	12	434	1997	미끄럼틀: 2, 시소: 2 철봉: 1, 그네: 2
	신일강변	6	15	453	1995	평행봉: 1, 구름다리: 1 미끄럼틀: 2, 철봉: 2
	쌍용	6	12	440	1996	미끄럼틀: 2, 철봉: 2 그네: 2, 시소: 2

표 6. 조사 지역 내 유희시설물 현황

지역	아파트 단지 내 유희시설 현황		
삼천지구			
	삼천동 주공6단지	신일강변 2	삼천동 쌍용
	서곡지구		
청솔		LG	두산
평화지구			
	평화동 현대	평화동 주공그린타운	평화동 일성

3. 단위유희시설에 대한 인식

단위유희시설에 대한 인식조사를 위해 크게 4가지(그늘, 유희기구의 종류 및 흥미성, 안전성, (유희기구의 색깔, 모양, 크기))에 관한 항목으로 나눠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을 통해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그늘

모든 유희공간에서 그늘이 적다라고 응답한 어린이가 전체 410명중 275명(67%)으로 가장 많으며 보통으로 생각하는 어린이는 119명(29%)에 속하고 있다. 이것은 기존의 유희공간에는 수목이 거의 없는데 기인한 것으로 해석되며 유희 공간내에 수목을 배제시키기보다는 필요한 경우에는 수목을 식재하여 적절한 그늘을 조성해줄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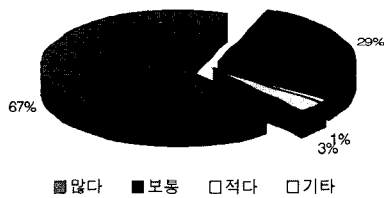


그림 1. 유희 공간에서의 그늘

2) 유희기구 종류 및 흥미성

유희기구의 종류 및 흥미성에 대한 조사 내용을 보면 모든 유희시설 종류에 대하여 적다라고 생각하는 아동은 전체 410명중 254명(62%)정도에 해당하며 많다고 생각하는 아동은 37명(9%)에 불과하다. 이는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가 법적기준에 맞추어 2~5% 정도만 시설을 초과하여 설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관계규정에 16개 이상의 유희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6개 정도의 유희시설물이 추가로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시설에 대해 아이들 119명(29%) 정도가 아직도 시설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유희공간의 흥미성에 대하여서는 전체 410명중 217명(53%)이 재미가 없다라고 응답하였다. 재미있다고 응답한 아동들은 45명(11%)에 불과하여 전체적으로 재미가 없음을 엿볼 수 있었다. 실제로 유희시설물중 대부분 차지하는 기구가 시소와 그네로

표 7. 유희기구 종류수의 만족도

유희기구 종류수의 만족도				
	많다	보통	적다	전체
인원수	37	119	254	410
퍼센트	9%	29%	62%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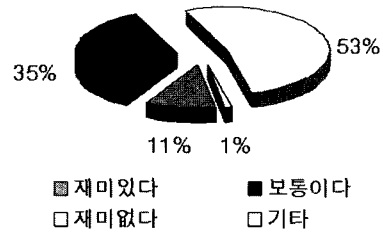


그림 2. 유희기구의 흥미성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유희기구의 다양성과 복합·변화성을 가진 유희 시설물이 있어야만 아동이 유희기구에 대하여 느끼는 만족도를 충족할 것으로 추정된다.

3) 유희기구의 안전성

대부분의 아파트 경우 전체 410명중 171명(41%) 정도가 보통이라고 여기며, 147명(35.8%)의 경우가 시설의 위험성을 생각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아파트의 건축년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복합 유희 시설이 있는 아파트의 경우 혼잡성에 따른 안전성을 우려하였지만 전혀 그러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유희기구의 색깔, 모양, 크기

모든 유희공간에서 유희기구의 색깔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가 전체 410명중 174명(42.4%)이며 마음에 든다가 83명(20.2%), 보통이다 153명(37.4%)으로 나타났다. 모양이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아동은 169명(41.2%), 마음에 든다 82명(20%), 그렇지 않다 159명(38.8%)이었으며, 크기가 알맞지 않다 191명(46.6%) 알맞다 82명(20%), 보통이다가 137명(33.4%)이 응답하였다. 유희공간별로 색깔, 모양, 크기가 다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을 미루어 볼 수 있다. 아울러 대부분의 유희공간에서 그네, 미끄럼틀, 모래사장, 철봉, 시소 등이 80.2% 정도 차지하고 있었다. 이는 아동이 싫어하는 유희기구에도 속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미루어 볼 때 너무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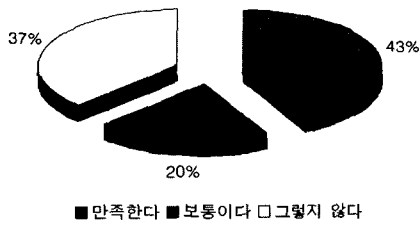


그림 3. 유희기구의 색의 만족도

추정되며 특이한 유희기구가 있었다면 응답 내용이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 진다.

따라서 이는 새로운 유희기구 개발의 필요성을 암시해 주는 것으로 사료가 된다. 기존 유희공간의 유희기구는 단조로움을 가져다주는 유희기구들이 많이 있다.

특히 법적 기준에 있는 유희시설의 종류인 그네, 미끄럼틀, 시소, 모래판, 기타 유희시설 등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흔히 볼 수 있는 기존의 유희기구는 앞서 소개한 유희공간에 대한 내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모든 아동이 단조로움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볼 때 자전거 놀이, 야구 등의 유희를 하는 경향이 있으며 유희공간 이외에도 롤러스케이트, 야구, 자전거놀이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기존 유희공간의 유희기구를 보다 다양화 시킬 필요가 있음을 말해준다. 여자의 경우는 책보기, 롤러스케이트, 배드민턴, 소꿉장난 등의 유희를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남, 여 모두 동적 유희를 좋아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평면적이며 정적인 구성을 하고 있는 대부분의 기존 유희공간의 개선 방향을 암시해 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표 8. 유희기구의 모양에 대한 만족도

	유희기구의 모양에 대한 만족도		
	만족한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인원수	82	169	159
퍼센트	20%	41.2%	38.8%

표 9. 유희기구의 크기에 대한 만족도

	유희기구의 크기에 대한 만족도		
	만족한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인원수	82	137	191
퍼센트	20%	33.4%	46.6%

4. 유희시설에 대한 선호도

1) 일반적 선호도

모든 유희공간에서 좋아한다(16.1%), 보통이다(43.9%), 싫어한다(40%)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유희시설의 흥미성, 안전성에서 나타나는 바와 마찬가지로 아동에게 흥미성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동적 유희공간구성에 필요한 색다른 유희기구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으며 조합 유희시설, 복합 유희시설, 조각놀이, 물놀이 등의 새로운 시설이 필요한 것이다.

유희공간 이외의 유희장소로서는 집 앞이나, 단지 내 주차장(70%), 학교(23.2%)를 이용하고 있다. 유희공간에 가지 않는 이유는 시설 내용이 재미없거나 부모가 못 가게 해서가 87.9%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중 부모 입장에서 아동을 유희공간에 보내지 않는 이유는 시설이 불량하거나 위험이다. 또 유희공간까지의 거리가 멀어서 유희공간에 가지 않는 아동도 11.7% 정도가 되는 것이다. 신일강변과 쌍용, 주공 APT가 시설의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나머지 APT들은 서로 비슷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평화주공그린과 두산 APT가 시설이용이 재미가 없어서 선호도가 낮으며, 대체로 부모가 못가게 하기 때문에 이용률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거리가 멀어서 이용률이 낮은 APT로서는 LG, 신일강변, 쌍용이 가장 먼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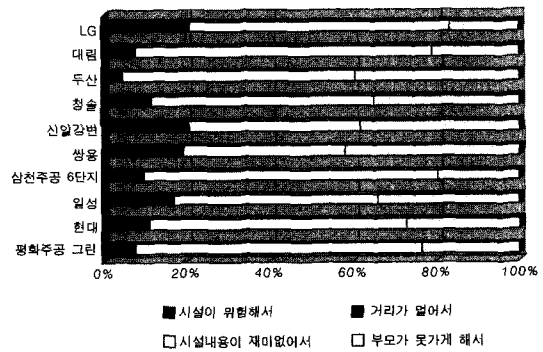


그림 5. 유희공간에 가지 않는 이유

5. 유희시설 이용의 현황

본 연구에서 유희시설이용의 현황에 관한 조사사항을 크게 이용이유, 이용시간 및 계절, 유희공간의 동반자, 유희시설물의 만족도, 관리상태 등으로 나눠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유희시설의 이용이유

아동이 유희공간을 이용하는 주된 이유를 조사한 결과 재미있는 유희시설이 있어서가(2.4%), 친구들이 있어서(39.5%), 마음대로 뛰어놀 수 있어서(6%), 유희공간 말고는 재미있는 곳이 없어서(24.6%)로 조사되었다. 또한 아파트별로서는 대림과 두산, 쌍용 아파트단지에 거주하는 아동의 응답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아동의 이용시설이유는 물리적 측면 보다는 심리적 사회적 측면이 강하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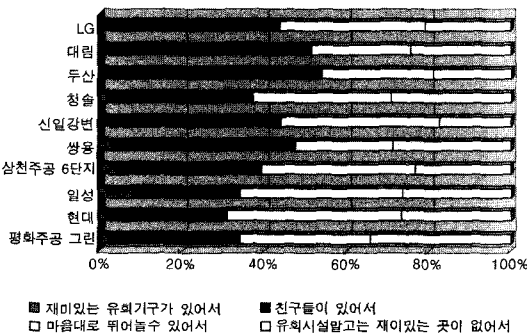


그림 6. 유희시설 이용이유

대림, 두산, 쌍용APT에서는 친구들이 있어서 이용한다는 이유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유희시설말고 다른 재미있는 곳이 없어서라고 답변 응답자가 가장 높은 APT로서는 평화주공 그린 APT였으며, 다음으로 청솔, 쌍용순으로 조사되었다.

2) 유희공간의 이용시간 및 계절

유희공간을 주로 이용하는 시간에 관한 조사 결과로서는 오후 3~7시가 가장 높으며 고학년 일 경우 8-9시 사이에 운동을 하는 경우로 나타나고 있다. 보통 아동들은 학교 수업이 끝난 후 돌아와서 학원에 다니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었고 학원에 가기 위해서 20~30분정도 일찍 나와서 노는 경우와 수업이 끝난 후 집에 들어가기 전 20~30분 정도 유희공간에서 노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또한 아파트별 조사에서도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아동이 주로 이용하는 계절은 봄(43.2%), 가을(38.3%), 여름(14.9%), 겨울(3.6%)순으로 봄과 가을에 편중되어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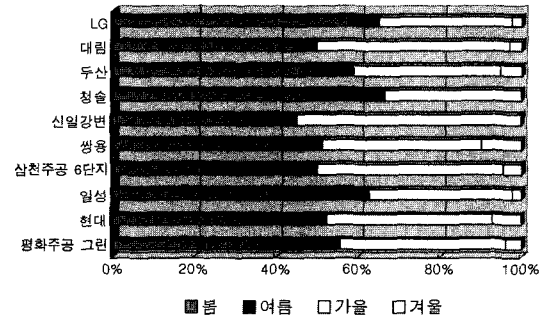


그림 7. 유희시설 이용계절

아파트별 조사에서는 <그림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APT에서 봄과 가을에 가장 많은 이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유희공간의 동반자

아동이 유희공간에 갈 때 혼자서가는 경우(19.6%)보다 친구(69.7%)나 형제, 자매(7%) 등과 같이 가는 경우가 있으며, 부모와 같이 노는 경우(3.7%)는 당연히 희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 유희공간에서 놀 때에는 대부분 아동이 2~6명 정도(84.1%)의 소집단적 구성원이 모여서 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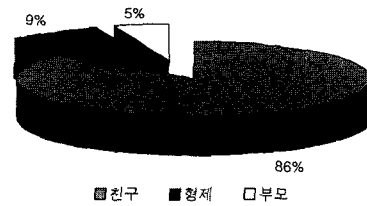


그림 8. 유희공간 동반자

4) 유희시설물의 만족도

유희시설물 만족도에 관한 조사 결과로서는 대부분의 많은 아동이 음수대가 없다(21.9%)를 1순위로 응답했으며, 그 다음이 화장실이 없다 가(15.9%), 햇빛과 비를 막는 차양대가 없다 가(15.5%), 밤에 어둡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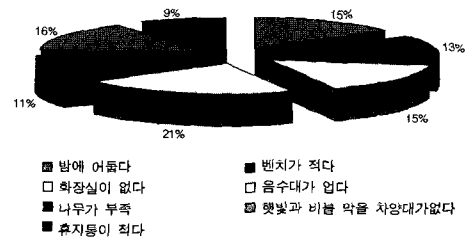


그림 9. 유희공간의 만족도

뚝다 (14.8%) 등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결국 단지내 유희시설물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아동들은 부대시설에 대한 불만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나아가서 조명시설에 대한 불편호소는 아동에게 있어서 유희기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5) 유희공간의 위치 및 관리상태

유희공간 위치에 대한 아동의 응답을 보면 불만스러워하는 아동이(38.5%), 보통이다(36.6%), 만족한다(24.9%)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서 유희공간의 위치는 단지규모에 따라 제일 마지막에 짜투리 땅에 설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희공간의 규모가 부정형이 되든지 아니면 긴 장방형이 생기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현상 때문에 아동이 쉽게 접근하기가 어렵게 되며 자기 집과의 거리가 심지어는 100~200 m가 넘는 경우가 흔히 있게 되는 것이다. 유희공간의 관리상태는 과반수 정도가(49.5%) 불만스러워하며 만족스러워하는 아동의 수는 21.2% 정도로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6. 유희공간의 이용상 특성

아동 유희공간의 이용실태와 인식에 따라 아래와 같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위치면에서 유희공간은 아동의 부모나 보호자로부터 가시, 가청거리에 입지해야 함이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조사결과 위치적으로 유희공간이 단지의 외곽이나 후미진 자투리땅에 절반이상이 차지하여 아동이 유희공간보다는 단지내 도로나 녹지 공간을 이용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조사 되었다.

둘째, 시설면으로서 단지내에 주로 설치된 유희시설로는 그네, 미끄럼대, 시소, 철봉의 4종에 불과하였으며 이는 도시공원법에 규정된 최소시설 가운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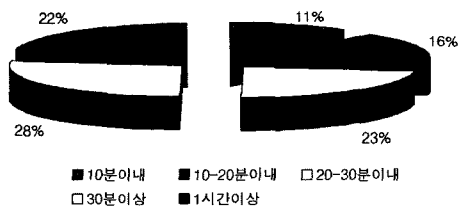


그림 10. 유희시설 이동시간

표 10. 집에서 유희공간까지의 거리

10 m 이내	10-20 m 이내	20-30 m 이내	30-40 m 이내	52 m 이내
106(25.9%)	98(23.9%)	101(24.6%)	57(13.9%)	48(11.7%)

정글집, 긴 의자, 모래사장 등이 미비 된 상태이다.

셋째, 그늘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조경시설이 미비하다는 것이다. 대부분 단지내 유희공간에는 주위에 조경식재 시설이 없어 비 활동성 유희행태인 자유유희를 즐길 수 없으며 그 원인으로 현행 법규상 아동 유희공간의 조경시설로서 상록수식재의 규정 외 다른 수종이나 수량에 관한 지침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점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넷째, 관리상의 문제점으로 신축 후 2-3년 이상이 경과된 단지의 유희시설은 준공시 건설주체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물과 추가로 설치된 종류는 찾아 볼 수 없었으며 시설물이 낡고 보수를 요하거나 아예 이용할 수 없어 방치된 시설물도 있었다.

VI. 결 론

본 연구는 전주시 아파트의 아동 유희시설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아동의 행태적인 특징과 일반적 유희의 유형에 관한 제이론을 살펴보았으며 현장 실태조사를 통하여 유희공간에서 일어나고 있는 제반 사항의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아동의 유희공간은 단지내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고정된 유희기구 이외의 야구, 배드민턴, 롤러스케이트와 같은 동적인 유희공간 및 유희 시설들의 조성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유희공간의 이용에 관한 조사결과 70% 이상의 아동이 단지내 주차장을 유희공간으로 이용하고 있다. 따라서 동적 유희공간 조성을 위하여 주위에 있는 학교 운동장을 개방하여 적극적으로 이용하거나 아파트 단지내 주차장을 시차제 또는 지하화 함으로서 주간에 지상공간을 동적 유희공간으로 활성화 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 아동 유희공간은 가능하면 연령에 따라 구분하고 특히 유아용 유희시설은 단지내 동과 동 사이에 조경이 되어 있고 햇볕이 잘드는 곳에 설치하고, 친구들과 가장 많이 동행하는 것으로 조사되었

는데 이를 부모와 동행할 수 있게 부모를 위한 벤치 등 휴식공간을 함께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유희공간의 위치선정에 관한 조사결과 10~30 m 이내의 거리에 위치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주위 환경과 인동배치에 따른 세심한 고려가 요구되며 나아가서는 아동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적정거리를 설정해 주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외국의 유희공간 시설기준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기준은 규모별, 연령별, 기능별, 입지별 구분이 모호하고 아동의 신체조건을 바탕으로 하는 규격기준의 설정이 미흡하며 아동행동의 과학적 근거에 기인한 시설물 배치 규정이 요구된다. 또한 유희공간유지 관리를 위한 점검내용과 기준을 제시해 주어야 할 것이다.

이상으로 아파트 단지내 아동 유희시설의 이용행태에 관한 연구를 설문조사를 통해 조사해 보았다. 앞으로 이를 기초로 더욱더 실증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김수린·김진일(1987. 12). 『아동놀이 형태와 건축환경의 구조화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지.
2. 윤충렬(1977. 12). 『아파트 단지내 어린이 놀이터에 관한 건축 계획적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3. 조남훈(1987. 12). 『아파트 단지내 어린이 놀이터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4. 대한주택공사(1983). 『어린이 놀이 환경계획』.
5. 환경과 조성(1983. 4). 『어린이 놀이 환경과 시설』.